

발 간 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범죄양상 속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범죄통계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983년부터 매년 '범죄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큰 틀의 변화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최신의 범죄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경찰 치안정책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작년 12월말 범죄통계 분석 활성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죄통계 책자를 공동 발간하기로 하고, 범죄통계 분석활용팀을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각고의 노력 끝에 「2011 범죄통계」 공동 발간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경찰활동과 형사 정책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다양한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총범죄 중심의 개괄적인 발생, 검거 분석 외에 살인, 폭력, 강간·강제추행, 강도, 절도, 사기 등 6개 주요 지표범죄에 대해 심층적 분석자료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범죄추세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통합 집계해왔던 '살인통계'를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망하지 않은 사건이 살인으로 집계되는 현상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부터는 살인통계를 UN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국제화 현상과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와 '고령자 범죄'에 분석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범죄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강력, 지능 등 주요범죄 외에 유형별 현황 파악이 곤란하였던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등 새로운 분류항목을 신설하였고,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타 범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2011 범죄통계」 발간과정을 통해 많은 개선과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확한 통계분석은 정확한 통계입력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자료입력을 통해 통계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 동안 범죄통계 책자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동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단한 실무작업을 진행한 경찰청 범죄통계 담당자들과 수많은 통계원표를 입력하여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8. .

경찰청 수사국장 

발 간 사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초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중 경찰이 인지한 범죄와 검거활동을 분석한 「2011년 범죄통계」를 공동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2011년에 MOU를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 사업추진,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교류 활성화, 연구자료와 정보의 교환, 간행물 및 소장자료 상호 제공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2011년 범죄통계」의 공동발간은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상호교류협력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범죄통계」 책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를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과 특별법을 통합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죄유형별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예전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보다 상세히 구분하였습니다.

책자의 구성방식 역시 기존에는 범죄개요, 범죄분석도(그래프), 범죄통계표 등 3가지 영역으로만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범죄개요,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별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범죄통계 원자료분석이라는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분석작업에 임하면서 「범죄통계」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과 연구성과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분석 및 발간에 기대했던 것만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통계의 속성상 자료의 입력과정이나 집계과정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이미 규정된 틀에 의해 입력·집계된 자료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항목 또한 한정되어 있었기에 기존의 분석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으며 새롭게 항목을 재분류하거나 추가분석을 하기에 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범죄통계 책자 공동발간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의 산출과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한 첫걸음을 내 딛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발간은 범죄통계 분석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1년 범죄통계」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양기관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범죄 양상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원표의 개선에서부터 통계분석에 이르기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료 공개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경찰청 관계자 및 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신 경찰 여러분 그리고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범죄통계 개선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기꺼이 범죄통계 분석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8